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7회

7.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

2010년 5월 8일(안식일 아침)

[벤전1:8,9]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序;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기념칭호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의 기념은 네 가지가 있는데, 존재양식의 기념, 창조주로서의 기념, 심판주로서의 기념,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이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말씀 안에서 굳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CD를 원하시면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고, 몇 번째 설교 CD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CD를 보내드립니다. 매 설교마다 한 개는 무료로 드립니다. 만일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면 메시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씩 강조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드리는 말씀도 역시 원하시는 분들에게 CD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오늘의 본문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민심을 보고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지요.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울고 가야하는 모통인가 생각하고 울었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통인가 하고 교회에 다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를 확인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2.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행16:30~32]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 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붙잡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죄수들은 감옥에서 맞아 아픈 것 때문에 앓고 억울하다고 고함치고 감옥 안이 한참 부산하고 어지러운데, 이 사람들은 조용하고, 밤중이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와 기쁨의 찬송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놓은 차꼬가 다 풀렸습니다. 탈옥하기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요. 아마도 간수가 자다가 지진에 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잠가둬도 탈옥을 시도하는데 문이 활짝 열렸으니 탈옥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를 해치지 말라는 바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간수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수들이 탈옥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감옥이 천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런 사태가 보통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는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엄청난 사실을 체험했지요. 그러나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말 한마디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naïve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와 그 식구들은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최종적인 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3.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길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 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가는 중요합니다. 무엇에서부터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곧 성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13~35을 읽으면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하신 대화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날 오후지요. 두 제자는 실망 중에 자기들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았지만 당국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오늘 아침 몇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말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이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글로바야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가 아니냐. 나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눅24:25~27]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 안내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손을 들어 축사를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신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친히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도마가 믿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2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비유 중에 나사로가 말하지요.

[눅16:27~31]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16: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야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부활한 사실을 보고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곧 모세와 선지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말씀은 어떤 이적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24:24,2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직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보다도 성경말씀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책임이 큼니다.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기 위하여 애쓴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고후2:17]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수다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이 없는 시대, 오직 기록된 말씀만 있는 시대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17:11,12]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자세히 성경과 대조하여 들은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천금 같은 말일지라도 신앙과 교리로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잘 못된 신앙을 가지도록 속입니다.

[고후11:14,15]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사인지 사단인지 분별하기 힘듭니다. 사단은 자기 일꾼들을 의의 일꾼처럼 위장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간 조심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과 대조해봐야 합니다.

[사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말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말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변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울무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직 말씀, 올바른 말씀을 따라 신앙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것은 성경을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성경을 교묘히 사용하여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현저한 예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감히 성경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마4:5~7]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4: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는 예수님께 성경으로 대들었습니다.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편 91:11,12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인용은 성경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또 기록하였으되”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성경구절을 사용한다고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록하였으되 까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신앙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이 많은 이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길을 확인하고 믿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을 수 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는 성경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찌 잠을 깨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히 성경말씀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속임이 많은 세상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깨달아 확인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주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

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 CD를 원하시면 시작할 때 말씀 드린 대로 626-374-9480으로 전화 주셔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전해 주시기 바라고, 설교자에게 연락하실 분은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